

하박국네 이야기 2019. 12

E-mail : kahh1691@hanmail.net 연락처 : (82)010-4608-1690(가형호)

010-8696-7633(손은숙)

카카오ID : kahh0691 후원계좌 : 884-06767-266-01 시티은행 가형호

502-910658-70507 K E B 하나은행 가형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1-4)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사랑하는 동역자 모든 분들께 감사들 드리며 소식을 전합니다. 소식이 늦어지게 되어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동안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고 여러 번 기도편지를 쓰다가 지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과 저희를 기도와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더 큰 희망과 비전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야한다는 마음 때문에 더욱 내 자신을 채찍질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동안 말씀을 통독하면서 레위기서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고민과 저의 수술을 위해서 온정성과 힘을 다하여 기도와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온 마음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의 사건으로 인하여 너무나 큰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은혜를 다 갚아야 할까 기도하면서 빨리 회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과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위의 말씀은 이곳 복내전인치유센터에 있으면서 갈등과 고민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이 몸에서 작동을 못하는 것이 있는데 몸속에 있는 독소와 죄에 가려져서 이러한 생명의 빛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속에 치료하는 새 생명이 강력하게 작동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을 작용을 못하게 만드는 것 온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스턴트식품과 몸의 독소를 싸이게 하는 식사습관 즉 과식등과 불규칙적인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의 생체리듬이 무너지고 결국은 질병이 걸리게 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섬세하신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시119:67)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벧전 5:10)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롬 8: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질병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어 나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까지 세우시고 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선교사역을 한다는 핑계로 가족과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한 것에 죄송한 마음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기보다 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있었는가 하는 것도 돌아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자를 세우고 있었던가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만 살려고 발버둥 치게 되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고 남을 위해서 죽고자하면 살게 되고 남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자신이 살아난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어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살기위해서 남을 섬기고 사랑하며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남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복음을 전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가장 마음이 뜨거웠던 때가 언제였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게 더 복음을 증거할까 하고 계획하고 노방전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였을 때 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였지만 내가 살기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하여 다시 그러한 마음을 회복시키고 계심을 감사하게 됩니다.

♥ 믿음의 세 자녀 ♥



요즘 세 아이들을 매일 저녁마다 성경을 암송을 하게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면서 혼자 이곳 치유센터에 있었던 우울증과 마음의 짐들이 서서히 벗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한다고 하니까 하기 싫다는 이야기도하고 잘 외우지 못한다는 아이도 있었는데 이제 모두 제법 잘 따라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암송을 하기 위해서 50번 이상 반복해서 읽어야 암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횟수가 줄어들더니 이제는 3-5번 읽고도 암송을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쓰면 쓸수록 더욱더 개발된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씀암송과 말씀의 뜻을 설명해주고 간간히 복음의 메시지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한 시간 동안 통화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이들이 짜증을 내지 않고 잘 따라해 줘서 고마웠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제목을 나누면서 아이들의 말에 저의 가슴을 찡뚫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아빠 집에 언제와!!!”, “엄마, 아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이 말을 듣고 한동안 눈물이 나서 기도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딸에게 “그래 아빠가 네 말을 듣고 나서 눈물이 나서 기도를 못했어!!!”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섬길 가족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또한 이렇게 함께 기도해주시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함께하는 즐거운 성탄과 새해를 맞으시길 기도합니다.

♥ 기도제목 ♥

1. 2020. 1. 2일 이곳 보성에 있는 복내전인치유센터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전적으로 치유와 이아들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안전사고 없이 이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보금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잘 회복되어지며 필요한 모든 재정도 채워주셔서 가족이 잘 회복되게 하소서.

2. 하은, 하원, 하영이가 학교를 일 년에 한번 이상 바꾸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인데... 아이들이 새로운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소서.

3. 제가 이번 계기를 통하여 더욱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폐암의 치유) 강건하여 지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로 앞으로의 사역을 잘 준비하며 그러한 일군들을 세워나가는 참된 목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4. 모든 가족이 영. 육간의 강건하여지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하소서.